



[정책동향] 파키스탄, 5개년 축산 발전 계획 발표

- 원유, 육류 및 가금류 생산 증대 및 구제역 관리 방안 등



파키스탄 정부가 원유생산량 증가는 물론 축산업 현대화를 위한 통합 축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당국은 원유는 물론 육류 및 가금류 생산을 늘리고 구제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670억 루피(약 1조 700억원) 규모의 단기 및 중장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상업용 목장을 비롯해 원유 집유 및 우유 마케팅 센터를 설립하는 등 단기 및 중기 프로젝트가 제시되었으며 육류 및 가금류 판매점, 농장 설립 등 축산업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제역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우유, 육류 및 가금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고용 기회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 실행을 위해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을 전했다.

< 출처 : dawn.com, 2월 17일자 >

[낙농생산] 인도, 젖소용 웨어러블 기기 개발

- 젖소 건강 상태 파악 및 건강 지표 공유



인도 스타트업인 Stellappas가 젖소의 건강을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기기는 핏빗(Fitbit)이나 애플워치 같이 젖소의 다리에 착용시켜 활동 수준을 분석해 그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예방접종과 인공수정 일정 등을 기록함으로써 농가와 수의사에게 중요한 건강 지표를 공유하도록 개발되었다.

참고로 캔사스 주립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활동량이 많은 젖소가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원유의 단백질과 유당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기기를 통해 젖소의 건강은 물론 우유의 영양 성분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procon.org, 2월 15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